논어 15편 위령공 4장 · 원문·풀이

子曰：「無爲而治者，其舜也與！夫何爲哉？恭己正南面而已矣。」

독음 · 자왈 무위이치자 기순야여 부하위재 공기정남면이이의

쉬운 풀이(요약) · 순임금은 자신을 공손히 하고 제자리를 바르게 지키는 것으로 무리한 간섭 없이 다스렸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無 없을 무 무 / 爲 할 위

而 말이을 이 / 治 다스릴 치 치 / 者 놈 자 / 其 그 기

舜 순임금 순 순 / 也 어조사 야 / 與 너울너울할 여 여 / 夫 지아비 부 부

何 어찌 하 하 / 哉 비로소 재 재 / 恭 공손할 공 공 / 己 자기 기 기

正 바를 정 정 / 南 남녘 남 남 / 面 낯 면 면 / 已 이미 이 이

矣 어조사 의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